

90년대 '성담론'의 새로운 윤곽

지적 탐구에 쏠리는 대중적 관심... 성현실과 괴리가 문제

김성기

서울대 강사·사회학

성이 흐른다. 그냥 흐르다 못해 요동하며 뒤흔다. 개방화와 세계화는 성에도 해당되는 것일까. 성은 더 이상 침실이나 골방에 갇혀 있지 않다. 대낮의 광장에 머리를 더민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비디오 《부부생활 리서치》에서 영화 포스터나 신문가판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생맥주잔이나 막걸리 광고에도 온갖 성적 욕망과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네 삶 전반에 스며들어 나날의 일상을 구속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주목할 사실은 갈수록 성이 기존의 윤리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이다. 성은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을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는 일은 촌스럽다, 느끼는 그대로 즐기면 그것으로 족하다 등의 논법이 위세를 떨친다. 급기야 “람보 남편과 양귀비 아내, 우리 모두 이런 가정을 만듭시다!”라는 부부사랑 캠페인(?)이 펼쳐진다. 더 나아가 성은 ‘문화적 해방’에 이르는 마지막 비상구로 낭만화되기도 한다.

새로운 형식의 성담론

과연 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고 있다. 이 점은 출판 동향에서도 엿보인다. 과거에 ‘성’을 상품화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를테면 포르노그래피적인 아슬아슬함이나 문학적·영화적인 이야기 구조로 치장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성담론이 90년대 문화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성의 본질을 둘러싼 지적 탐구에 대중적인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분명 전례 없던 일이다.

새로운 성담론의 윤곽을 그려보도록 하자. 먼저 성에 대한 교양적·계몽적 접근이 눈에 띈다. 쿤터 아멘트의 《섹스 북》(박영률 출판사, 1995)이 그 한 예이다. 이 책은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성해방’을 가르치는 성교육서다. “성은 아무리 금지하거나 통제하려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명제 아래 성의 온갖 꺾뎀기를 벗긴다. 독일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정도만 감수한다면 이 책으로부터 성교육의 새로운 시각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김학현의 《성의 기원》(민음사, 1996)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은 동물행동학과 진화론의 관점에서 성의 문제를 다룬다. 왜 성은 암수 둘뿐일까? 성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 오르가슴은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 무심히 넘겨버렸던 주제들이 다양한 생물들의 사례를 통하여 재미있게 설명된다.

이같은 성교육서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뭇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담론도 있다. 제프리 워스의 《섹슈얼리티》(현실문화연구, 1994), 황정미(편)의 《미셀 푸코, 섹슈얼리티와 정치의 페미니즘》(새물결, 1995), 서동진의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문예마당, 1996) 등이 그렇다. 이 흐름을 관통하는 개념축은 푸코-섹슈얼리티-성정치학이다.

알다시피 푸코는 90년대 지식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철학자이다. 그는 성을 자연적 소질이나 선천적 본능으로 보는 기왕의 성담론을 거부하고 “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성은 하나(본질)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형태를 취하며, 그 형태는 권력자와 그에 저항하는 자 사이의 타협과 쟁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성정치’라는 주제가 떠오른다. 성정치란 곧 남녀의 차이, 성적 착취 및 쾌락, 그리고 성의 의미 등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다투는 열린 장을 뜻한다. 사회 일각에서 ‘동성애 다시 보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쉬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성’

끝으로, 성의 역사를 다루는 흐름이 있다. 에두아르트 푸코의 《풍속의 역사》가 고전이지만 최근의 예로는 장 보로테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섹슈얼리티》(새로운 사람들, 1996)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프랑스 아날학과 신세대의 공동작업이다. 인간의 집단적 심성을 연구하는 ‘망탈리테사(史)’의 견지에서 사랑과 성의 기본 토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소개한다. 예로, 연애 감정과 낭만적 사랑의 원형, 임신 공포와 피임의 확산, 남성 동성애의 비밀 집회 등 신비 속에 휩싸여 있던 성과 사랑의

우리네 삶 전반에 ‘성’이 흐른다. 더 나아가 성은 ‘문화적 해방’에 이르는 마지막 비상구로 낭만화된다. 90년대 문화의 한 줄기는 새로운 ‘성담론’이다.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성의 공론화’, 인간해방의 의제로서 ‘성의 정치화’가 과연 ‘성의 상품화’의 유혹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심각히 따져볼 일이다.

박미화(원광대 조소과 3년) 작·
〈회상〉(‘MBC 구성조각전’ 중에서)



사회적 차원을 역사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이반 일리치의 《젠더》(따님, 1996)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여기서는 섹시즘(여성차별주의)의 탄생이 자본주의의 형성이라는 경제사적 관점에서 분석되는데, 이 책은 성정치학이나 페미니즘 모두에 대해 실망하는 이들에게 제3의 눈을 열어줄 수도 있으리라.

방금 90년대의 새로운 성담론을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두가지 논지를 읽게 된다. 하나는, 성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며 공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토론되어야 할 사회적 영역이라는 점이다. ‘성의 공론화’ 테제이다. 다른 하나는, 성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가변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성적 정체성의 ‘본질/진리’는 없으며 동성애자의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성적 정체성이란 문제는 인간 해방의 주요한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의 정치화’ 테제이다.

‘성 상품화’의 벽

성담론의 이같은 주의주장을 인정한다 할

지라도 이런 의문이 든다. 성담론이 성현실에 도전하느냐 아니면 추수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성담론과 성현실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의 상품화’가 지배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고 담론이나 지식이 권력과 결탁한다는 푸코의 지적도 있듯이, 오늘의 성담론이 과연 ‘성의 상품화’를 자극하는 소비문화의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점은 한번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다. 혹, 성의 상품화 추이에 힘입어 각종 성담론의 의사(擬似)전위성을 구가하고 있는 형편은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다. 물론 성담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그 내부에 옥석은 가려져야 마땅하다. 그럴 때 한 기준은 성의 상품화라는 현실의 벽을 실제로 돌파할 의지가 있느냐 여부에 있으리라. ❖